DOI http://dx.doi.org/10.22143/HSS21.9.4.96

한·중 색채어 관련 관용구 대조분석: 「'검다', '黑'」, 「'희다', '白'」를 중심으로

황 해 영*

요약: 본 연구는 중국인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급 한국어 색채어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색채어 중에서 '희다'와 '검다'를 대조하였다. 색채어 중 '검다', '희다' 계열 색채 형용사를 선택한 원인은 모든 언어에서 '검다', '희다'가 존재하며 가장 기본적인 색채어이자 언중들에게 가중 중요한 색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무채색 어휘가 유채색 어휘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색채어가 관용구 속에서 어떠한 개념의 의미와 연관이 있으며, 인간의 감정과 내적인 심리 상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조사하여 상호 비교하였다. 관용구 '검다'와 '희다'의 관용표현에 대한 연구결과 지금까지 살펴본 표현을 보면 한·중 양국은 모두 음양오행사상의 영향을 받아 공통점을 나타내기도 했으나, 고유한 민족적 기질, 양국이 겪어온 역사 문화, 등으로 인해 차이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논문에서는 구체적인 단어 예시를 통하여 중국어와 한국어의 '검다' '희다'의 공통점과 다르게 표현된 단어들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설명을 통하여 한국어를 공부하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색채어 표현 학습에서 문화적 배경에 따른 단어의 뜻과 사용에 대한 더 빠른 이해와 습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핵심어: 색채어, 희다, 검다, 관용구, 대조

A Contrastive Analysis of Idiomatic Expression Related to Color Terms in Korean and Chinese Language - Focusing on 「'검다', '黑'」, and 「'희다', '白'」

Haiying Huang

Abstract: The study compared 'whiter' and 'Black' among Korean and Chinese Color Terms as basic materials for medium-level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Chinese speakers. The reason why I chose 'Black' and 'whiter' colors among color words is because 'Black' and 'whiter' have been treated in every language, and they have been recognized as the most basic color and vocabulary important color. In this study, Korean and Chinese Color Terms were correlated with the meaning of concepts in idioms and how they were linked to human emotions and internal psychological states. According to a study of the idiomatic words "Black" and "whiter" in Korean and Chinese expressions, the two countries were influenced by yinyango events, but they also shared their own cultural differences. The paper explained words that were expressed differently from the similarities between Chinese and Korean. Through these explanations, Chinese learners of Korean language are encouraged to help them understand and acquir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and use of words according to cultural background in learning the expression of Color Terms.

Key Words: Color Terms, Whiter, Black, Idioms, Contrast

□ 접수일: 2018년 8월 16일, 수정일: 2018년 8월 24일, 게재확정일: 2018년 8월 28일

* 인하대학교 글로컬다문화교육전문인력양성사업팀 연구원
(Inha University, Email: haiying04@hanmail.net)

Ⅰ. 서론

본 연구는 한국어와 중국어 색채어가 관용구 속에서 어떠한 개념의 의미와 연관이 있으며, 인간의 감정과 내적인 심리 상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조사하여 상호 비교하고자 한다. 세상의 모든 사물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색을 언어라는 기호로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색채어이다(이승애, 1997). 색채어는 다양한 색채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적 맥락과 연계되어 인간의 감정이나 느낌도 표현한다. 따라서 색채어의 관용표현을 고찰함에서 그 나라의 문화와 배경을 보지 않을 수 없다.

한 나라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서로 간에 말을 주고받는 요령이 달라질 수 있고,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다(김진우, 1996: 412). 대부분의 관용구는 구성 단어의 일차적 의미의 합으로부터 그 전체적 뜻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용구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문화적·전통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정규영, 1994: 3).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색채어를 사용한 관용구의 상호 동질성과 이질성에 주목하여 이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색채 언어 명칭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색채어는 거의 색깔 전체에 걸쳐 추출할 수가 있겠으나 본 연구는 '흑'과 '백'이 사용된 한국어와 중국어 관용구로 분석 대상을 한정하고자 한다. 분석을 통하여 중급 이상 한국어, 중국어 학습자들에게 양국의 문화적 맥락의 이해를 통해 단어 습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색채어 관용구 연구의 중요성

색채는 인간생활이나 문화 발달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거쳐 왔으므로 자연히 색채어도 발달과 변화를 겪어왔다. 다양한 색채들은 우리의 감각과 정서를 끊임없이 자극하여 우리의 언어 속에서 외부 세계와 내적 세계를 묘사하고 표현하는 수단으로 다양한 정서를 표출해왔다. 인간은 색채어를 통해 단순히 물리적인 빛의 색, 즉 색상, 명도, 채도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감정 등을 색채어의 고유한 성질에 비유하여 표현하기

도 한다. 하나의 색채가 각 나라의 관용 표현 속에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사회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색채 형용사'의 개념은 '기본 색채 어휘를 포함하는 형용사'로 정의한다. 색채어 중 '검다', '희다' 계열 색채 형용사를 선택한 원인은 모든 언어에서 '검다', '희다'가 존재하며 가장 기본적인 색채어이자 언중들에게 가중 중요한 색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또한 한국어 교육에서 무채색 어휘가 유채색 어휘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신현숙·이영란, 2004).

같은 한자 문화권에 속하여 있는 한국과 중국은 지리상으로 가깝지만 다른 사고방식과 문화 배경 때문에 색채어의 표현이 다를 수 있다. 이런 문화적 차이로 양국 언어 학습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잘 표현하는 관용 표현과 색채어에 초점을 맞추어 관용 표현 속의 색채어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색채어 중에서 형용사 색채어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관용표현을 통해서 한·중 두 나라 언어표현에서 의미를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희다', '검다'계열 색채 형용사를 대상으로 한다. 색채어 중에서 검은색은 흰색과 더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색채이며 모든 나라 언어에 있다. 빛과 어둠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공통된 경험이며 흰색과 검은색은 빛과 어둠에서 출발한다. 색채어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한 학자인 Berlin & Kay(1969)에서도 모든 언어는 흰색과 검은색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교하게 될 「'희다', '白'」, 「'검다', '黑'」이 사용된 관용구는 다음과 같은 문헌을 기본 자료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한국어 자료-

1. 표준국어대사전(1999)
2. 네이버 국어사전 관용구, <http://dic.naver.com/>

-중국어 자료-

1. 現代漢語詞典
2. 百度词典, <http://dict.baidu.com/>

상기 자료에서 취합된 관용구의 의미를 개별적으로 고찰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의 뜻이 대응되는 관용표현과 뜻이 대응되지 않는 관용표현으로 구분하여 의미를 상호 비교하겠다.

이런 분류 기준으로 분류한 것은 본 연구 결과가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Ⅲ. ‘검다’가 포함된 관용구의 의미 분석 및 대조

‘검다’는 형용사로 일차적으로 한자어 흑(黑)의 뜻으로 ‘검다’라는 표현은 한국어에서 다양하게 표현된다. ‘검다’의 유의어로는 ‘감다’, ‘거뭇하다’, ‘거뭇거뭇하다’가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 자료를 발췌한 사전 등에서는 ‘검다’, ‘黑’을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한국어 ‘검다’의 경우에는 ① 숯이나 먹의 빛깔과 같이 어둡고 짙다; ② 속이 엉큼하고 흉측하거나 정체를 알기 어렵다; ③ 침울하고 암담하다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어 ‘黑’의 경우에는 형용사, 명사, 동사로 쓰이며 뜻은 ① 숱이나 석탄의 빛깔과 같은 색; ② 어둡다, 빛이 부족하다; ③ 은밀한, 불법적이다; ④ (마음) 악독하다; ⑤ 성씨에 사용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양 국어에서 ‘검다’, ‘黑’이 사용된 관용구표현들을 살펴보고 상호 대응되는 표현과 대응되지 않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1. 한국어 ‘검다’와 중국어 ‘黑’의 기본 형태

ㄱ. 검다

- 가맣다 / 까맣다 / 새까맣다 / 새카맣다
  거멓다 / 꺼멓다 / 시꺼멓다 / 시커멓다

ㄴ. 黑

- 黯黑, 黜黑, 漆黑, 魆黑 / 黢黑, 墨黑 / 黝黑, 铁黑 / 乌黑 / 焦黑
- 黑黢黢, 黑黝黝, 黑漆漆, 黑乌乌 / 黑墨墨, 黑魆魆 / 黑糁糁

(ㄱ)은 기본 색채 형용사 ‘검다’이며 사전적 의미로는 ‘숯이나 먹의 빛깔과 같이 어둡고 짙다’는 뜻이다. 그리고 ‘검다’의 어간의 양성모음 형태인 ‘감다’의 사전적 의미는 ‘석탄의 빛깔과 같이 다소 밝고 짙다’는 뜻이다. ‘검다’ 어휘 자체는 ‘감다’ 외에 형태로 인하여 의미가 분화하지 않는다. (ㄱ)은 ‘까맣다’의 어휘군이다. ‘까맣다’는 상태를 강조하

는 '앟/엏'이 결합되어 자음과 모음이 변화함에 따라 그 의미가 좀 더 세분화된다. 자음 'ㄱ'의 특성상 된소리 경음과 거센 소리 격음인 'ㄲ'과 'ㅋ'으로, 모음은 양·음성에 따라서 'ㅏ', 'ㅓ'로 색채의 명도와 채도에 변화를 준다. 그리고 접두사 '새/시'가 결합되어 그 의미를 더욱 강조한다. 접두사 '새'의 경우 자음과는 상관없이 양성 모음과 결합하며, 접두사 '시'는 음성 모음과 결합하는 특징이 있다. 중국어의 黑는 칠(漆)과, 까마귀 오(烏) 자와 같이 쓰이며 黑BB, A黑A黑 형태를 띠어 색채의 강조를 나타낸다.

2. 한국어 '검다'와 중국어 '黑'의 관용 표현 속 의미

1) 한국어와 중국어가 서로 대응되는 관용표현

① 속 1

ㄱ. 검은 속내를 드러내다/ 시커먼 속내를 드러내다/ 새까만 속내를 드러내다, 시커먼 속셈

ㄴ. '黑心肠(心肝)'

'검다'가 사용되는 관용 표현에서 삶의 의식체계 속에 '黑'을 강조함으로써 주관적으로 부정적인 개념의 강조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중국어에서도 검은 마음은 '뱃속이 검다, 마음이 독하다'는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② 얼굴

ㄱ. 얼굴이 까맣게 탄 안산댁은 딱하고 민망하여 들어서는 김 훈장을 보자 고개를 숙인다.

ㄴ. 交帐的时间到了, 刘华山看到了阿雪两手空空而回, 脸色不由黑了(교대 시간이 되었다. 유화산은 아쉬에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얼굴이 어두워졌다).

'얼굴이 까매지다'는 관용구 사전이나 관용구 목록에서 그 표현이 나타나지 않아 제외되었지만 한국어를 사용하는 모국어 화자들의 경우 '근심이나 걱정으로 하여 얼굴빛이 어두워졌다'는 뜻으로 쓰인다. 중국어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걱정거리나 슬픔, 또는 화났을 때 얼굴 표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③ 수치, 누명, 불명예

ㄱ. 검은 돈을 받다

ㄴ. 黑货, 黑社会, 黑金 / 黑钱, 黑色收入, 黑帐

한국어의 '검은 돈을 받다'는 뇌물의 성격을 띠거나 그 밖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주고받는 돈을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검다'는 정직하지 못하고 엉큼스러운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중국어에서도 '黑货'는 '장물, 탈세 상품, 밀수품, 금지품, 위반품 등 불법적인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黑金/黑钱'은 '검은 돈'이라는 뜻이다. '黑社会'는 '마피아와 같은 범죄조직'을 가리키는 말이다. '黑色收入'은 불법 수입이다. '黑帐', '비밀, 암거래 장부'의 뜻으로 쓰인다.

④ 암담한 상황, 희망이 없는 상태

ㄱ. 검은 구름이 몰려오다.

ㄴ. 乌云压顶(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다).

한국어의 검은 구름이 몰려오다는 암담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표현으로 쓰인다. 중국어에서 乌云压顶은 어둠의 세력이 가득 찬 세상을 형용한다.

⑤ 수량이 많은 상태

ㄱ. 새까맣게 몰려오다.

ㄴ. 广场上黑压压的站满了人(광장에는 사람들이 새카맣게 모여들었다).

'검다'라는 표현은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모두 사람이 많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색채어이다.

⑥ 비밀, 불법의 성질

ㄱ. 검은돈의 흐름을 막기 위한 것이다.

ㄴ. 黑钱, 黑市

'검은 돈'이란 '뇌물의 성격을 띠거나 그 밖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주고받는 돈'을 뜻한다. 중국어의 黑钱'도 불법적인 금전을 뜻하며 黑市는 비공개적인 암시장을 뜻한다.

2) 대응되지 않는 관용표현

① 속 2

ㄱ.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다

ㄴ. 속이 시꺼멓게 타다

여기에서 검다는 다양한 형태로 불안, 초조, 근심 따위로 속이 몹시 타는 것을 의미한

다. 옛부터 나무와 가까운 생활을 하던 우리 민족에게 불이 다 타고난 나머지는 새까만 숯과 재뿐이었다. 숯이란 불이 모든 것을 앗아간 나머지에 남겨진 슬픔과 공허함이었으며 그것은 곧 공포와 두려움의 부정적인 의미까지 내포한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이 정도를 넘어서서 속을 다 '새카맣게'에 이른다. 그러나 중국어는 '黑心'은 흉측하거나 음흉함을 나타낸다. 중국어에서는 걱정할 때는 색채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② 손

ㄱ. 검은 손을 뻗치다.

ㄴ. 黑手党

'검은 손을 뻗치다'는 사람을 속여 이용하거나 해치려고 음흉하고 흉악한 속셈으로 접근한다는 뜻이며, 여기서의 '검다'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음흉스러움을 의미한다. 중국에서 黑手党은 마피아 조직을 일컫는 말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③ 입술

ㄱ. 입술이 까맣게 타다

ㄴ. 嘴唇发黑, 像中毒一样

한국어에서 입술이 까맣게 탄 것은 근심과 초조, 걱정의 뜻을 나타내지만 중국어에 검은 입술은 중독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④ 놀람

ㄱ. 하늘이 깜깜하다.

'하늘이 깜깜하다'는 어두워졌다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지만 문맥에 따라서 '하늘이 노랗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다. 하늘이 '깜깜하다', '노랗다'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당황하거나 놀라게 되어 생리적으로 순간 앞이 캄캄해지거나 노래지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중국어에서 하늘과 '黑'자가 결합하면 단순히 날이 어두워졌다는 뜻으로 쓰인다.

⑤ 무지한 상태

ㄱ. 까막눈

한국어에서 까막눈은 글자를 모르는 무지한 상태를 나타낸다. 중국어에서는 눈을 이용한 신체표현에 '검다'라는 표현으로 무지함을 나타내는 대응되는 표현이 없다.

⑥ 물리적 거리

ㄱ. 산 정상에 도착하려면 아직 새까맣게 멀었다(네이버 사전).

'새까맣다'는 '거리가 아주 먼 곳'을 의미한다. '검다'의 '어두움 '속성이 너무나 먼 거리에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의미에서 전이되었다. 너무 캄캄해서 앞을 구별할 수 없어서 앞길이 막막하고 막연할 때도 사용된다. 중국어에는 '검다'계열은 색채어를 통해서 거리가 먼 곳을 나타내는 표현을 발견되지 못했다.

⑦ 나이의 거리

ㄱ. 새까맣게 어린 후배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후배를 일컫는 말이다. '까맣다'를 강조하는 '새까맣다'의 형태로 주로 사용되며 '까맣다'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여기서의 '새까맣다'는 앞에서의 '까맣게 잊다'에서와 마찬가지로 '거리나 시간이 아주 멀어 매우 까마득하다'는 뜻을 갖는다. 중국어에서는 대응되는 표현이 없다.

⑧ 시간의 거리

ㄱ. 새까맣게 먼 옛날의 일

한국어에서 '시간의 거리가 아주 멀다'를 나타낼 때 '새까맣다'라는 표현을 써서 나타내지는 중국에는 색채어를 사용하여 쓰는 관용 표현은 발견되지 못함으로 대응을 이루지 못한다.

⑨ 반혁명적인 성질

ㄴ. 黑五类

黑五类는 중국 역사상에서 '黑'자가 제일 큰 목소리를 냈던 시기는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 시기(1966-1976)에 나타난 '반동이나 반혁명'을 나타내는 '黑五类', '黑纲领', '黑文'같은 많은 관용 표현들은 한국어 관용표현에 없었다.

⑩ 정직하고 위엄 있는 성격

ㄴ. 黑脸包公

중국 송나라 시대에 부패한 정치를 바로잡고 엄숙하고 정직하며 공정한 관리로 소문난 '포증(包拯)'의 얼굴 특징을 잡아 표현한 것이다. 한국어에는 이와 대응하는 표현이 없다.

Ⅳ. '희다'가 포함된 관용구의 의미 분석 및 대조

'희다'는 형용사로 일차적으로 한자어 백(白)의 뜻으로 '희다'라는 표현은 한국어에서 다양하게 표현된다. '희다'의 유의어로는 '결백하다', '눈부시다', '순백하다'가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 자료를 발췌한 사전 등에서는 '희다', '白'을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한국어 '희다'의 경우에는 ① 눈이나 우유의 빛깔과 같이 밝고 선명하다; ② [같은 말] 희떱다(2. 말이나 행동이 분에 넘치며 버릇이 없다); ③ '물리' 스펙트럼의 모든 광선이 섞이어 눈에 반사된 빛과 같다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어 '백'의 경우에는 형용사, 명사, 동사로 쓰이며 뜻은 ① 눈이나 우유 빛깔과 같은 색; ② 밝다, 빛이 밝다; ③ 분명하다; ④ 순결하다; ⑤ 텅 빈, 비어있는 상태; ⑥ 성과나, 효과가 없다; ⑦ 대가 지불이 없는 상황; ⑧ 진술, 고백; ⑨ 문언문의 반대말인 백화문으로 사용; ⑩ 공개하다; ⑪ 장례식, 상사에 사용; ⑫ 틀리다의 뜻; ⑬ 정치적으로 반동적인 뜻; ⑭ 중국 소수민족 백족의 호칭; ⑮ 성씨에 사용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양 국어에서 '희다', '白'이 사용된 관용구표현들을 살펴보고 상호 대응되는 표현과 대응되지 않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1. 한국어 '희다'와 중국어 '白'의 기본 형태

1) 기본 형태

ㄱ. 희다

- 하얗다 / 새하얗다 / 새카맣다
  허옇다 / 시허옇다 /

ㄴ. 白

- 雪白, 乳白
  白白, 白净, 白皙
  白皑皑, 白花花, 白晶晶, 白厉厉, 白亮亮, 白闪闪, 白生生, 白刷刷

2) 의미

기본 색채 형용사 '희다'이며 사전적 의미로는 '눈이나 우유의 빛깔과 같이 밝고 선명하다'는 뜻이다. '희다'는 형태로 인하여 의미가 분화하지 않는다. (ㄱ)는 '희다'에서 파생된 '하얗다'의 어휘 군이다. '하얗다'는 상태를 강조하는 '앟/엏'의 변이형 '얗/옇'이 결합되어 모음이 변화함에 따라 그 의미가 좀 더 세분화된다. 모음은 양·음성에 따라서 'ㅏ', 'ㅓ' 로 색채의 명도와 채도에 변화를 준다. 그리고 접두사 '새/시'가 결합되어 그 의미를 더욱 강조한다. 접두사 '새'는 양성모음과 결합하며, 접두사 '시'는 음성모음과 결합하는 특징이 있다. 중국어의 '白'는 '白A', '白B', '白BB' 형태를 띠어 색채의 강조를 나타낸다.

2. 한국어 '희다'와 중국어 '白'의 관용 표현 속 의미

하얀 옷을 즐겨 입는 선하고 깨끗한 우리 민족을 '백의민족'이라 하고, 까마귀와 상반되는 '백로' 역시 고사 성어 안에서 더러움을 쉽게 타는 고결한 이미지를 '희다'의 긍정적인 면으로 인식한다. 밝음의 상징이기도 한 태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희다'이지만 관용 표현에서의 의미는 다르다.

'희다'를 사용하는 관용 표현에 부정적인 속성이 담긴 것은 '희다'의 '무(無)'색이 순수 무결한 이미지와 특정한 색감을 갖지 못하는 무의미한 이미지를 동시에 갖는데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1) 대응되는 관용표현

① 심리상태 터무니없음

ㄱ. 흰소리를 하다

ㄴ. 空口说白话

'흰소리를 하다'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자랑으로 떠벌리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여기서 '희다'의 의미는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소리의 의미를 뜻한다. 중국어에서 白話는 당나라 송나라 이후 구어에 근접한 서면어를 통칭하는 단어로, 또는 광둥어를 일컫는다. 다만 '空口说白话' 같은 경우는 한국어와 같은 뜻으로 터무니없는 소리를 뜻한다.

② 업신여김

ㄱ. 흰 눈을 하다

ㄴ. 用白眼看人(경멸하다).

'흰 눈을 하다'는 '흰 눈으로 보다'와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데 누군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눈의 흰자위로 사람을 쳐다보는 것을 말한다. 한자성어로는 '백안시(白眼視) 하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남을 업신여기거나 냉대하여 보는 것' 또는 '무시해버리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중국어에서 '用白眼看人'은 경멸하거나 싫어할 때 눈을 흘기는 것을 뜻한다.

③ 근심 걱정

ㄱ. 얼굴이 하얘지다

ㄴ. 脸色苍白(얼굴이 창백해지다).

'얼굴이 하얘지다'는 '춥거나 겁에 질리거나 하여 얼굴이 핏기가 없이 하얗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의 관용 표현은 '하얗다'를 사용하는데 '희다'로 대체하면 의미가 어색해진다. '하얗다'는 '희다'보다 좀 더 의미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중국어에서도 놀라거나 겁에 질렸을 때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한다.

④ 수량이 적은 상태

ㄱ. 머릿속이 하얘지다/새하얘지다

ㄴ. 脑子一片空白.(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

'머릿속이 하얘지다'는 머릿속이 텅 비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흔히 '잊어버리다'를 나타내는 '까맣게 잊다'와 비슷하게 쓰이는 관용표현이다. '까맣게 잊다'에서 '까맣게'는 시간이 흘러 기억에서 멀어져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면 '하얘지다'의 '하얗다'는 어떤 말을 듣거나 무엇인가를 보는 순간 그 충격으로 머릿속이 텅 비어 기억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까맣게 잊다'에서의 '까맣다'가 색의 구체적 속성에서 멀어진 것과는 달리 '머릿속이 하얘지다'에서의 '하얗다'는 색의 구체적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이는 모든 것이 지워진 상태로 텅 비어 '無'의 '하얀' 상태임을 나타내는 관용표현이다. 중국어에서도 같은 표현으로 머릿속에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상태를 空白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냈다.

⑤ 무지한 상태

ㄱ. 백치

ㄴ. 白痴(백치)

중국어와 한국어 모두 백치(白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 또는 바보를 칭하기도 한다.

⑥ 아무것도 없다, 헛됨

ㄱ. 머릿속이 백지장이 되어버립니다

ㄴ. 白日梦(헛된 꿈), 白费力气(헛되이 힘을 빼다)

한국어에서도 '백'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표현하며 '머릿속이 백지장이 되어버린다'는 말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는 표현이다. 중국어에서의 '白'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헛됨, 무'의 뜻을 표현하기에 '白日梦'은 헛된 꿈, '白费力气'는 헛되이 힘을 빼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⑦ 나이가 많음

ㄱ. 백발의 노인

ㄴ. 白发苍苍(머리가 하얗다-나이가 많다)

흰머리는 동양에서는 나이 듦의 표현으로 한국어에서는 '백발'이라는 표현으로 중국어에서도 동일하게 '白发'은 나이가 들어 하얗게 센 머리를 표현함으로 나이가 많음을 표현한다.

2) 대응되지 않는 관용표현

① 경시

ㄱ. '백수(白手)'

한국어에서의 '백수'는 '손이 희다'의 뜻이 아닌 하는 일 없이 놀고먹는 사람을 일컫는다. 중국어에서는 이와 대응되는 표현이 없다.

② '한숨도 못 자다'의 뜻

ㄱ. 하얗게 밤을 새우다

'하얗게 밤을 새우다'는 한숨도 자지 않고 뜬눈으로 밤을 지내는 것을 말한다. 밤은 어두움, 곧 '黑'을 의미하며 그와 반대되는 개념은 밝음, '白'이다. 빛이 없던 어두운 밤을 새우고 나면 밝은 낮이 돌아오고 그 밝음을 '하얗다'는 표현으로 대신한다. '하얗다'의 구체적 속성이 그대로 드러난 표현으로, 주로 부사로 사용하기 때문에 '밤을 새우다'를 꾸미

는 구체적인 색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지만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중국어에는 이와 대응하는 관용표현이 없었다.

③ 착한, 선한 의도

ㄱ. 하얀 거짓말, 새하얀 거짓말

한국어에서 '하얀 거짓말', '새하얀 거짓말'은 좋은 의도, 선의의 거짓말을 나타내는 말이며 빨간 거짓말과 반대되는 뜻으로 쓰이다. 중국어에서는 거짓말에 색채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ㄱ. 백색테러(white terror)

ㄴ. 白色恐怖(백색공포)

한국어에서 '백색테러'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암살·파괴 등을 수단으로 하는 테러이다. 백색테러는 극우나 우익에 의한 행위를 가리키며, 좌익에 의한 적색테러와 구별하여 사용된다. 역사적으로 프랑스 혁명 기간이었던 1795년 혁명파에 대한 왕당파의 보복을 기원으로 보며, 인종차별 단체인 KKK단이 저지른 테러가 현대적인 백색테러의 대표적인 예다. 중국어에서 '白色恐怖'는 독재정권으로 인해 집권자들이 정치적으로 대립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박해하는 불안한 사회적 상황을 말한다.

Ⅴ.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관용표현을 보면 한·중 양국은 모두 음양오행사상의 영향을 받아 공통점을 나타내기도 했으나, 고유한 민족적 기질, 양국이 겪어온 역사 문화, 등으로 인해 차이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상태를 나타내는 '검다'계열 관용표현에서 살펴보면 심리상태를 나타낼 때 모두 신체어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양국이 공통으로 대응을 이루는 있는 관용표현은 '음흉함', '놀람', '희망이 없는 상태', '이익이 있는 상태' 등이다. 부분적으로 대응을 이루고 있는 관용표현은 '근심이나 걱정', '화', '놀람' 등을 나타내는 표현들이다. 이외에 중국어에서는 '黑着脸' 등으로 '화'를 나타내지만 한국어는 '검다'계열 색채어를 쓰지 않고 '붉다'계열 색채어 '얼굴이 벌겋다'로 표현한다. 거리를 나타내는 관용표현에서 나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현을 제외하고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국어는 물리적인 거리나 시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관용표현은 있는데 중국어는 존재하지 않거나 색채어를 쓰지 않는다. 성질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관용표현을 살펴보면 '은혜를 모름'과 '불법, 비밀'을 나타내는 관용표현 중의 일부분만 대응을 이루고 있다. 이외에 중국어의 관용표현에서의 '黑脸'은 정직하고 위엄이 있는 사람을 나타내거나 차가움을 나타난 단어들도 한국어에서는 보이지가 않았다.

'희다'계열 색채어에서는 심리상태인 터무니없음이나 업신여김 근심 걱정 등에서 '희다'라는 색채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또한 중국어에서는 '희다'라는 색채어가 헛됨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양에서는 나이 들면 머리가 하얘지기에 한국과 중국 모두 '흰머리'는 나이 듦의 뜻을 나타내고 있었다. 대응되지 않는 표현들은 한국어의 백수는 할 일없이 놀고먹는 사람을 일컫지만 중국어에서는 손과 관련하여 '희다'라는 색채어를 사용하여 이러한 표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白面書生'에서는 얼굴색에 사용하여 문인을 표현한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뜬눈으로 밤을 지냈다는 표현을 '하얗게 밤을 새우다'라고 표현하지만 중국어에서는 대응하는 표현을 발견하지 못했다. 한국어에서 '하얀 거짓말'은 착한 거짓말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중국어에는 이와 대응하는 표현이 없었다. 그리고 중국어와 한국어 모두 '백색'을 테러 또는 공포라는 단어와 결합을 시켰지만 이데올로기적인 차이로 인해 한국의 '백색'은 우익을 나타내지만 중국어에서는 독재정권을 나타내기에 뜻이 다르게 대응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한·중 색채어 중 '희다'와 '검다'의 표현 양상과 관용표현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하여 제시하여 중국어와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문화에 따른 색채어 표현 양상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단 지면의 제한으로 색채어 표현 양상에 대한 깊이 있는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대한 소개가 미흡한 점, 그리고 흰색과 검은색만 분석하여 다른 색채어와의 관련성을 서술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색채어의 표현에 대한 깊이 있는 문화적 맥락의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공지현(2015), "한국어와 아랍어의 신체어휘 관용구 비교연구 -눈'عين' 과 얼굴'وجه'을 중심으로", 『중동문제연구』, 14(1):133-170.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김진우(1996), 『언어와 문화』,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신현숙·김영란(2004), "한국어 교육을 위한 색채어 어휘 정보』, 『이중언어학』, 24(단일호): 151-175.

원선영(2013), "한·중 검다계열 색채어의 대조 -형태, 의미,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춘정(2013), "한·중 색채어 관용 표현의 대조 연구 -기본 오색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승애(1997), "국어 색채어의 의미구조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윤표(2009), "한·중 관용구 표현의 대조적 연구", 『한국어학』, 44: 274-294.

장혜경(2008), "한국어 관용 표현 속의 색채어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규영(1994), "아랍어 숙어에 관한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15(단일호): 55-82.

최택호(2012), "한일 양언어의 신체 어휘를 사용한 관용표현에 관한 소고 -눈과 目, 머리와 頭의 감정표현을 중심으로", 『동양문화연구』, 10: 226-260.

中国社会科学研究院(1993), 『现代汉语词典』, 商务印书馆.

Berlin, B. & P. Kay(1969), "Basic color terms: Their university and evolution", California UP.